# 차 례

# 제1과

## 은정속에 피여난 재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할 때 있은 일입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재간둥이들가운데는 순복이라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지만 남달리 붓글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텔레비죤에서 붓글을 쓰는 어린이들을 볼때면 놀음도 밥먹는것도 잊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텔레비죤에서는 붓글을 잘 써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자기또래 어린이가 소개되고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저 애처럼 붓글을 잘 써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래요.》

《용타, 우리 순복이가 기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어머니는 순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그 이튿날 어머니는 순복이에게 붓과 종이, 먹을 갖추어주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순복이를 가르쳐줄 사람이 집에 없는것을 못내 걱정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애를 서예소조에 넣어줍시다. 우리 아버지장군님께서 어린이들의 재능을 키워주시려고 마련해주신 소조가 있지 않소?

거기서 유능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순복이도 훌륭한 서예가가 될거요.》

《야, 좋아!》

순복이는 너무 좋아 손벽까지 쳤습니다.

그때부터 순복이는 소조에 들어가 붓글을 쓰는 공부를 하게 되였습니다.

순복이의 붓글솜씨는 날마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순복이에게는 뜻밖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순복이에게도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방송야회에 참가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입니다.

순복이의 기쁨은 컸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 아실가?…

아버지장군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이시야! 난 붓글을 더 잘 써서 아버지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릴래.)

방송야회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순복이는 그동안 익혀온 붓글을 재간껏 썼습니다.

기쁜 마음안고 집에 돌아온 순복이는 아버지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에 보답할 한가지 생각으로 붓글씨련습을 부지런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순복이가 어느덧 3학년 학생이 되였습니다.

그때 마을앞으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있었습니다.

건설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순복이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순복이는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고속도로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아저씨들을 도와줄 일은 없을가? 그래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렇게 생각한 순복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 고속도로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아저씨들을 도와드릴래요.》

《네가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어머니, 내겐 아버지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붓글씨재간이 있지 않나요.》

《응, 그래?! 우리 순복이가 이젠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고맙게 여길줄두 알구 그에 보답할 생각까지 다 하는구나.…》

순복이의 깊은 생각을 기특하게 여긴 아버지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은혜를 입으면 응당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한다.》

《아버지, 잘 알겠어요.》

그때부터 순복이는 한자한자 정성을 다하여 속보를 썼습니다.

《충성의 전투를 벌려 도로건설을 앞당겨주세요!》

《아저씨들!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주세요!》

순복이가 쓴 힘있는 글발들이 들끓는 건설장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속보는 청년돌격대아저씨들과 지원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순복이는 온 건설장이 다 아는《속보원소녀》로 되였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순복소녀의 이 아름다운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색감과 붓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습니다.

순복이는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자기 혼자 다 받아안은것만 같았습니다.

순복이는 아버지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건설장 수십리길을 오고가며 속보쓰기를 더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순복소녀의 뜨거운 마음은 건설장에서 쓴 3만장의 속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할줄 아는 순복이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 제2과

## 소년단인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사성이 없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인사를 하여도 때와 대상에 맞게 할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단원이 소년단넥타이를 맸을 때에는 꼭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들사이에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길에서 두 소년단원이 서로 만나면 먼저 본 소년단원이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면 다른 소년단원은 《항상준비!》 하고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은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나 웃사람을 만날 때에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분단모임이나 소년단모임에 참가하여서는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분단모임에 참가하였을 때 분단지도원선생님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고 구호를 주면 모든 소년단원들은 《항상준비!》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대회에 소년단축하단성원으로 참가하였을 때에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대회에 소년단축하단성원으로 참가하면 대표아저씨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대회에 참가한 아저씨를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대렬을 짓고 가다가 다른 대렬을 만났을 때에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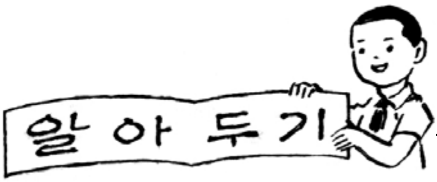
대렬책임자가 《차렷!》 하고 구령을 주면 소년단대렬은 정보행진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대렬책임자가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면 다른 대렬에서는 《항상준비!》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국기를 게양할 때에도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기가 게양될 때에는 분단지도원선생님과 분단위원장만 소년단인사를 하고 다른 동무들은 차렷자세로 공화국기발을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국기게양식에 참가할 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소년단원의 붉은넥타이에 담겨진 뜻

소년단원의 붉은넥타이의 붉은색은 소년단원들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겠다는 결의와 맹세를 담고있습니다.

붉은넥타이의 세 모서리는 소년단원이 청년동맹을 거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최대의 희망을 담고있습니다.

# 제3과

## 식사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식사를 나눌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켰습니다.》

집안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사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식사할 자리에 밥상을 놓아야 합니다.

밥상을 놓은 다음에는 깨끗한 행주로 닦고 어머니가 가리켜준대로 음식그릇을 놓아야 합니다.

음식그릇을 나를 때 손가락이 음식에 닿거나 쏟아지지 않게 두손으로 받쳐들어야 합니다.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아야 합니다.

찬그릇은 국밥그릇앞에 놓고 간장과 맛내기, 고추가루 등은 상가운데 놓아야 합니다.

숟가락과 저가락은 국그릇옆에 가지런히 놓아야 합니다.

웃어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웃어른들의 음식그릇 가까이에 놓아야 합니다.

밥상을 차린 다음에는 웃어른들과 동생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할아버지, 밥상을 다 차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식사를 하십시오.》

《영남이도 밥을 먹자요.》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웃어른들에게 먼저 식사를 권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식사를 해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여야 합니다.

《할머니, 먼저 먹고 학교에 가겠습니다.》

식사할 때 앉음새와 몸가짐을 바로하여야 합니다.

밥상에 알맞춤하게 다가앉아 웃몸을 곧게 하고 다리는 모두어 편안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웃어른들에게 드리고 동생에게도 주면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알맞춤하게 넣고 입술을 다문 다음 잘 씹어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숟가락이 넘치도록 떠서 흘리거나 여러번 잘라먹으면 안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고 말과 장난질을 하거나 코노래를 불러도 안됩니다. 음식그릇을 긁어 소리를 내거나 그릇채로 음식을 마시면 안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게 되면 몸을 돌리면서 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하여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숟가락과 저가락은 본래의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웃어른들에게 입가심할 물을 떠올리며 자기도 입가심을 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한 다음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밥상을 치우고 식사한 자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식사할 때의 행동질서를 잘 알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 제4과

# 몸차림을 단정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외모가 단정하여야 합니다.》**

몸차림을 단정하게 하면 자기도 좋을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거리도 아름답게 합니다.

학생들이 몸차림을 단정히 하자면 옷과 신발을 깨끗이 하고 머리단장도 잘해야 합니다.

옷을 깨끗이 거두며 정히 입고 다녀야 합니다.

학교에 갈 때에는 반드시 교복을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든 교복을 언제나 새것처럼 깨끗이 입어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채로 뽈을 차고 장난을 하거나 어지러운데서 놀면 안됩니다.

교복이 어지러워지면 제때에 빨아입어야 합니다.

옷에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혹시 터진데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옷을 책가방이나 방안의 한쪽구석에 구겨넣지 말아야 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 어머니가 정해준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머리단장을 잘하고 다녀야 합니다.



머리를 정상적으로 감아 늘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녀동무들은 쌍태머리를 곱게 땋아 댕기도 달고 다니는것이 좋습니다.

남동무들은 제때에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신발을 언제나 깨끗이 신고 다녀야 합니다.

좋은 옷차림을 하여도 신발이 어지러우면 외모가 단정해보이지 않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었거나 때가 앉았으면 제때에 닦거나 빨아신고 다녀야 합니다.



신발을 꺾어신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몸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는 버릇을 붙여 차림새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 제5과

## 운동회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타일러주어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운동회날이 왔습니다.

영순이는 운동회준비품이 다 있는가 세세히 살펴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운동회준비품들을 가지고 학교로 가고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번개〉팀이 꼭 이기자.》

《흥, 우리 〈우뢰〉팀은 가만 있다던. 어림두 없어.》

두 팀의 동무들은 승벽내기로 운동회가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운동회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경기는 탑쌓기경기입니다. 두 팀에서

준비된 선수들은 나오시오.》라는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렸습니다.

영순이네 분단이 속해있는 《번개》팀에서 10명의 동무들이 탑쌓기경기에 나가려고 대렬앞에 한줄로 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해.》

동무들은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느 팀이 먼저 탑을 쌓고 그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는가 하는 경기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야—》

두 팀의 동무들은 자기 선수들을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번개》팀의 동무들속에서는 경기에 나간 자기 팀의 선수가 실수를 하여 지게 되였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영순이는 그 동무들에게로 다가가《경기에 나간 동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비웃으면 되니?》 하고 타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동무들모두가 열렬히 응원하는데 봉일이와 몇몇 동무들은 한쪽에서 이야기판을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동무들이…)

《너희들은 응원하지 않니?》

영순이의 말을 듣고서야 그들은 응원대렬에 들어섰습니다.

첫 경기는 아쉽게도 《번개》팀이 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오는 선수들을 맞아주며 동무들은 《우리 다음번 경기에서는 꼭 이기자, 용기를 내.》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경기로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였습니다.

이어달리기의 마감선수로 《번개》팀의 영남이와 《우뢰》팀의 철수가 뛰였습니다.

이음봉을 먼저 잡은 영남이가 앞서 달리고 철수는 그를 따라잡으려고 힘껏 달렸습니다.

결승선을 앞둔 때였습니다. 영남이를 따라앞서려던 철수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순간 영남이는 돌아섰습니다.

《다치지 않았니?》 하고 철수를 일으켜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부축하여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요란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넘어진 동무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영남이가 기특하구나!》

운동회를 구경하던 학부형들은 영남이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어린시절 모범을 따라배워 그대로 행동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어달리기에 참가하였던 선수들이 들어오자 응원하던 동무들은 경기과정에 훌륭한 도덕품성을 보여준 영남이에게 꽃목걸이도 안겨주고 박수도 쳐주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두 팀의 동무들은 운동장을 말끔히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운동회에서도 질서와 례절을 잘 지킴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소년단원의 도덕품성을 잘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칭찬을 받을수 있는것이라면 도덕이 있는것으로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것이라면 도덕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이처럼 도덕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옳은것인가 잘못된것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제6과

## 웃어른들에게 먼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여왔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웃어른들에게 인사하여야 합니다.

《할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하면서 웃어른들을 따뜻이 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여러번 독촉을 해서야 겨우 일어나는것은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학교에 갈 때나 돌아와서도 먼저 웃어른들에게 인사하여야 합니다.

《할아버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갔다왔습니다.》라고 인사하여야 합니다.

동무네 집에 놀러갔을 때나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도 인사를 잘하여 웃어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색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 먼저 웃어른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기가 응당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많거나 작아도 웃어른들에게 먼저 드린 다음 자기도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나 휴식할 때에도 먼저 제일 좋은 자리를 웃어른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잠자리를 웃어른들에게 먼저 내여드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선선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를 웃어른들에게 먼저 내여드려야 합니다.

웃어른들이 한방에서 같이 쉴 때에는 먼저 웃어른들의 잠자리를 펴드리고 웃어른들이

먼저 누운 다음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좁은 골목이나 도로에서 웃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먼저 인사를 하고 웃어른이 지나간 다음 가야 합니다.

뻐스나 궤도전차, 기차를 타고갈 때에도 웃어른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웃어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하는 습성을 붙여야 합니다.

《어머니, 래일은 일요일인데 학습반동무들과 같이 동물원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동무들과 함께 물놀이장에 가려고 합니다.》 하고 물은 다음 승인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언제나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 제7과

## 귀중한 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지적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데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동무를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일요일, 정식이네 분단동무들은 혁이네 분단동무들과 군사놀이를 하였습니다.

이번 군사놀이는 두 분단에서 누가 먼저 다른 편 고지우에 붉은기를 꽂는가 하는 놀이였습니다.

정식이는 분단동무들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자면 동무들이 가지고있는 힘과 지혜를 잘 써야 해. 우리에겐 힘있는 동무도 있고 꾀있는 동무, 날랜 동무, 별의별 재간을 가진 동무들이 다 있으니까 그 재간을 귀중히 여기구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이길수 있어.》

이어 정식이는 분단동무들을 공격팀과 방어

팀으로 나누고 전술을 짰습니다.

《고지에 기발꽂는걸 누구한테 맡길가?》

정식이는 동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영민동무가 좋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민동무? 안돼. 고 조꼬만게 맥두 못출걸.》

키가 크고 몸집이 실한 창호가 반대했던것입니다.

《왜 안돼? 영민동문 머리도 잘 쓰구 또…》

《야, 군사놀이가 뭐 수학문제풀이 같은 줄 아니? 키도 크고 힘이 있어야 해. 힘도 못쓰는게 어떻게 기발을 꽂는다구 그래.》

《넌 꾀많은 장수가 힘센 장수를 이긴 이야기를 모르니?》

《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발은 내가 꽂겠다.》

창호는 제힘만 믿고 무턱대고 우기였습니다.

정식이는 창호에게 영민이와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창호는 볼부은 소리를 했습니다.

《싫어, 있으나마나한거. 나혼자 할래. 그렇지 않으면 난 군사놀일 안할래.》

《그만두렴. 너밖에 없다던?》

동무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튀여나왔습니다.

정식이는 동무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창호를 당장 일깨워주고싶었지만 군사놀이가 시작되여 그럴 사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끝에 정식이는 군사놀이에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겠다고 하면서 창호에게 기발꽂는 일을 맡기자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군사놀이는 시작되였습니다.

방어팀동무들은 고지를 빙 둘러 지키고 공격팀동무들은 모자와 어깨에 풀잎과 나무가지들을 꽂고 살금살금 숲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여기 앞쪽은 나 혼자 맡을테니 너희들은 량쪽으로 쭉 갈라져서 공격해라.》

이렇게 말한 창호는 기발을 허리춤에 살짝 감추고 재빨리 상대편고지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느덧 고지가 가까이 보였습니다.

이제 바위짬을 빠져 조금만 뛰여올라가면 기발을 꽂을수 있었습니다.

(이젠 문제없어, 승리는 우리거다!)

신바람이 나서 뛰여올라가는데 《손들엇!》하는 야무진 소리와 함께 숨어있던 세 아이가 달려들어 창호를 둘러쌌습니다.

(야, 이거 어쩐다. 둘이면 몰라도 셋을 혼자서 어떻게 당해낸담? 이런 때 우리 편 동무가 한명이라도 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창호는 어떻게 하나 빠져나가려고 빈틈을 노렸으나 오히려 그들은 바싹바싹 조여들었습니다.

(야단났구나, 기발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는데…)

이때 저쪽에서 영민이가 《창호동무》하고 부르며 붉은넥타이를 기발처럼 펄럭이면서 고지를 향하여 올리뛰였습니다.

세 아이의 눈길이 영민이에게 쏠렸습니다.

셋은 포위망을 풀고 영민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고지로 향하던 영민이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창호는 쏜살같이 고지로 올라가 기발을 꽂았습니다.

창호의 등뒤에서는 만세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창호는 휘날리는 기발을 쳐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영민동무, 고맙다! 네가 아니였다면? …아, 내가 나빴지!)

군사놀이가 끝나자 분단위원장인 정식이는 동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군사놀이를 통해 우리는 동무가 귀중하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어. 우리가 이기게 된것은 서로 동무를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었기때문이다.》

창호는 정식이의 말을 들으며 더 깊이 뉘우쳤습니다.

(동무를 깔보는 나쁜 버릇을 꼭 고치고 귀중한 동무들을 언제나 아끼고 사랑하겠어.)

# 제8과

## 도로표식을 정확히 보고 길을 건느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데서 학생들이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도로표식판들이 세워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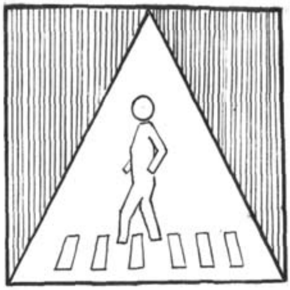
이 도로표식판들은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교통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교통안전표식판입니다.

표식판에는 지시 및 안내표식, 경고표식, 금지표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도로표식판들을 정확히 보고 길거리에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란색의 네모칸안에 사람과 자동차, 수자와 글 등이 새겨져있는 표식판을 보게 됩니다.

이 표식판들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표식판입니다.



동무들은 파란색의 네모칸안에 건늠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그려져있는 표식판이 있는 곳에서만 차길을 건너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노란색판의 검은삼각테두리안에 건늠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그려져있는 표식판이 세워진 곳으로 건너다니면 안됩니다.

이 표식판은 50m 밖에 건늠길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는 경고표식입니다.



경고표식이 세워진 곳으로는 절대로 건너다닐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란색판의 검은삼각테두리안에 건늠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그려져있는 경고표식을 보면 50m 더 가서 건늠길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 길을 건너다녀야 합니다.

파란 안내표식판안에는 빨간색의 더하기,

붉은 기발, 침대와 의자, 숟가락과 저가락이 그려져있는것도 있습니다.

빨간색의 더하기표식이 있는 파란 표식판은 병원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며 침대가 그려져있는 파란 표식판은 려관이 있다는것을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숟가락과 저가락이 그려져있는 파란 표식판은 식당이 있다는것을 알려주며 의자가 그려져있는 파란 표식판은 휴식터가 있다는것을 안내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면 길거리에서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찾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빨간색의 동그란 테두리안에 승용차와 자동차, 자전거와 수자, 글이 새겨져있는 표식판이 세워진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식은 금지표식입니다.

빨간색의 동그란 테두리안에 화물차가 그려져있는것은 운전사들에게 이 길에서는 화물차가 다닐수

없다는것을 알려줍니다.

빨간색의 동그란 테두리안에 빨간색의 곱하기를 한 표식판은 모든 차들이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표식입니다.

빨간색의 동그란 테두리안에 오토바이, 뜨락또르, 자전거가 그려져있는 표식판도 있는데 이것들도 다 금지표식입니다.

학생들은 도로표식판의 이러한 안전규정을 잘 알고 교통안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미리 막자면**

○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네거리에서 차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 길을 건너다녀야 합니다.

○ 차가 완전히 멈춰선 다음에야 차에 오르거나 내려야 합니다.

○ 건늠길시설과 표식이 따로 없는 길에서는 오가는 차가 없을때에 곧바로 건너가야 합니다.

○ 길에 차가 서있을 때에는 차뒤로 건너가야 합니다.

# 제9과

# 모임질서와 규률을 잘 지키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지키는것은 집단생활의 초보적인 요구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여러가지 모임에 참가하여 질서와 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주네 분단에서 분단모임을 하던 날이였습니다.

분단동무들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 들어와 생활수첩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한 분단동무들의 앞가슴에는 소년단휘장이 반짝이고 붉은넥타이가 곱게 매여져있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모임에 정중히 참가할 준비를 다 갖추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동무가 모임시간을 모를리 없겠는데?) 하며 동무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야 근호는 헐떡거리며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동무들의 눈길이 근호에게 쏠렸습니다.

《창민동무와 함께 수영을 하다가 늦었어. 모임시간전에 온다는게 그만…》

《모임시간이 다 되였는데 오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까왔는지 아니?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야겠어.》라고 진주가 일깨워주었습니다.

분단모임이 시작되였습니다.

분단모임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부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이 보고를 하는데도 근호는 벗겨놓은 웃단추를 채우지 않고 덥다고 부채질까지 하였습니다.

진주는 모임질서와 규률을 지키지 않는 근호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호의 옆구리를 다쳤습니다.

그제서야 근호는 부채질을 그만두고 단추

를 채웠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여러 동무들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동무들의 학습을 진정으로 도와준 혜영동무의 모범을 본받자는 토론도 있었으며 공부시간에 규률을 지키지 않은 결함에 대하여 토론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이와 영수는 토론이 자기와는 상관없는듯 책상밑에 그림책을 펴놓고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대성동무와 영수동무의 행동은 모임질서를 어기는거야…)

진주는 참을수 없었습니다.

진주는 대성이의 등을 가볍게 치며 눈짓하였습니다.

대성이와 영수는 보던 책을 책상안에 넣고 똑바로 앉아 토론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분단지도원선생님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모임질서와 규률을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문제토의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모임에 늦게 참가한 근호와 그림책을 보며 토론을 잘 듣지 않은 대성학생과 영수학생의 행동은 소년단원으로서 조직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타일러주시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호는 모임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대성이와 영수도 자기들의 결함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모임질서와 규률을 잘 지키는 훌륭한 소년단원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 제10과

## 풀색크레용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집단속에서 살면서도 집단이 귀중하다는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학용품들이 사는 마을에는 솜씨전람회가 열린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1등을 해야지.》

학용품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저마다 솜씨를 내여 전람회에 내놓을 전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연필과 지우개는 둘이서 힘을 합쳐 작문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연필이 글을 쓰다 실수를 하면 지우개가 살짝 지워주군 하였습니다.

눈금자와 삼각자는 학교를 설계하고 수공가위와 바늘, 실은 색동옷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집에서 사는 크레용네 형제들은 의논하던 끝에 멋진 그림을 그리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애들아, <우리 학교>를 그리는게 어때?》

《그게 좋겠어.》

크레용네 형제들은 그날부터 자기 색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저마다 색을 칠해보았습니다.

풀색은 그림종이를 척 펴놓더니 나무잎과 시내물을 칠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잔디밭과 푸른언덕, 나무숲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학교>를 그리자면 나 혼자 거의 다 그려야겠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그리는게 낫지.)

풀색은 형제들에게 자기는 혼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 풀색을 타일렀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나 한집에서 살면서 함께 그림을 그려온 형제가 아니냐? 우린 누구든지 하나만 빠져도 <우리 학교>

를 잘 그릴수 없단 말이야.》

《난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릴수 있어.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이나 잘 그려.》

풀색은 이런 말을 남기고 끝내 집에서 뛰쳐나가고말았답니다.

《이젠 어떻게 한다?》

크레용네 형제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한동안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풀색이 없이야 우리끼리 어떻게 그리겠니? 차라리 그림그리기를 그만두고말자.》

노란색이 이렇게 말하자 빨간색이 차근차근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에 약속한대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해. 그래서 전람회에서 꼭 1등을 해야 해.》

《정말이야. 우리 형제들이 언제 한번 마음먹었던것을 못해본적이 있었니? 우리모두 힘을 합쳐 멋진 그림을 그리자.》

아홉형제들은 한낮이 지나도록 모여앉아 의논한 끝에 자기들의 힘으로 풀색을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홉형제들은 저마다 종이우에 자기색을 칠해보았습니다.

둘이서 안되면 셋, 넷이 지혜를 합치고 마음과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하늘색이 칠한 우에 노란색이 덧칠해서 끝내 풀색을 만들어내고야말았습니다.

《풀색이다, 풀색!》

하늘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소리치자 형제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 안고 빙빙 돌아갔습니다.

아홉형제들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학교》를 멋들어지게 그렸답니다.

손꼽아기다리던 전람회날이 왔습니다.

전람회에는 연필과 지우개가 지은 《봄》이란 작문도 나오고 눈금자와 삼각자가 만든 《학교설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크레용네 아홉형제가 그린 《우리학교》만큼 훌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크레용네 형제가 그렸다지?

참 신통두 하지…》

《그 그림이 1등이야!》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전람회에는 풀색크레용이 혼자 그린 그림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림이야? 이건 온통 시퍼런게 무슨 그림인지 영 알수가 없어.》

풀색크레용은 한쪽에 숨어서 머리를 수그린채 후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였습니다.

크레용네 아홉형제들은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풀색을 자기들의 집에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에야 풀색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것을 깊이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속에서 서로돕고 이끌며 사는 훌륭한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 제11과

##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설명절뿐아니라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과 같은 민속명절들도 더 뜻깊게 쇰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민속명절을 잘 쇠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속명절들인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을 더 뜻깊게 쇠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설명절은 새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쇠는 민속명절입니다.

설명절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예로부터 설명절을 맞이하면 집안팎을 깨끗이 정리하고 소나무, 학 등의 그림도 그려놓고 명절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설명절날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 태양상을 찾아 설인사를 드리고 웃어른들과 이웃들, 선생님을 찾아가 설인사를 드립니다.

동무들과도 설인사를 나눕니다.

집집마다 설명절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설날을 즐겁고 유쾌하게 보냅니다.

설날에 어른들은 장기와 윷놀이, 널뛰기를 하고 아이들은 팽이치기, 썰매타기, 연띄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깁니다.



정월대보름은 새해의 행복을 바라는 소박한 소원을 담아 예로부터 쇠오던 민속명절입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입니다.

이날에 어른들은 바줄당기기를 하여 마을 사람들의 화목과 단합을 시위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아이들은 바람개비놀이와 연띄우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의 연띄우기는 대보름의 놀이가운데서도 더더욱 홍이 나는 놀이였습니다.




설명절에 시작한 연띄우기는 정월대보름까지 하고 연을 일단 날려보낸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띄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보름의 연띄우기는 마지막연놀이로 되기때문에 많은 구경군들이 나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저녁에는 대보름의 달맞이를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우리들은 연띄우기,줄넘기,제기차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면서 온하루 시간가는줄 모릅니다.

이날 집집마다 오곡밥도 지어먹고 윷놀이,장기놀이를 하면서 흥성거립니다.

추석은 풍년농사를 잘 지어놓은 기쁨을 안고 예로부터 즐겨 쇠오던 민속명절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가을의 큰 명절이라는데로부터 추석 또는 한가위라 이름지어진 이날에 우리 인민은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속놀이는 그네뛰기와 씨름, 바줄당기기, 탈놀이와 거북놀이, 길쌈놀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날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렬사들의 묘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에도 민족음식을 만들어먹고 가족, 친척들이 한데 모여 민속놀이를 하면서 명절을 즐깁니다.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풍습을 더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속명절음식**

**설명절음식**—찰떡, 설기떡, 절편, 지짐, 떡국, 수정과, 식혜, 엿, 강정

**정월대보름음식**—오곡밥, 약밥, 엿, 명길이국수

**추석날음식**—송편, 설기떡, 밤단자, 찰떡

# 제12과

## 물을 때와 대답할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음과 대답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나 빨리 알고싶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망

탕 물어본다면 그것은 례절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새로 이사간 인동이의 집을 찾아 철이와 광성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야, 저 집들을 좀 봐, 정말 멋있구나.》

《야, 정말!》

줄지어 늘어선 새 집들을 보며 저마다 감탄하였습니다.

《철이동무, 인동동무네 집이 어느걸가?》

《새로 지은 마을이라니까 여기 어디 있겠지.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은 길거리를 살폈습니다.

《철이동무, 저 형님에게 물어보자.》

광성이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니 웬 형님이 빠른 걸음으로 오고있었습니다.

퍽 바쁜 일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철이동무, 바쁜 사람에게는 될수록 길을 묻지 말아야 해. 우리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응, 그러자.》

손자의 손목을 잡고 한 할머니가 걸어오고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여기 새로 이사온 인동동무네 집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누구… 인동이 말이냐. 저기 돌배나무가 있는 집이란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할머니는 그들을 대견히 바라보시였습니다.

집에 가니 인동이는 동생 선동이와 함께 돌배나무에 물을 주고있었습니다.

《인동동무.》

《야, 너희들이 왔구나.》하며 인동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어머니가 뜨락에 들어서시더니 《선동아, 어머니가 집에 계시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 선동이는 《아니.》라고 외마디 대답을 하며 도리질하였습니다.

인동이는 버릇없이 대답하는 동생 선동이

의 앞에 나서서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반장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반장어머니네 집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 길이 어긋난게로구나. 그럼 잘 있어라.》

《안녕히 가십시오.》

반장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인동이는 동생 선동이를 타일러주었습니다.

《선동아, 웃어른들이 물어보실 때 그렇게 외마디대답을 하면서 도리질하는것은 웃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나쁜 행동이란다.》

그리고는 선동이의 두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물음에 대답할 때에는 혼자만 알아들을수 있게 입안에서 어물어물하는것도 버릇없는 행동이야. 대답할 때에는 알맞춤한 소리로 똑똑히 말해야 한단다. 알겠니?》

《응.》

철이는 동생을 차근차근 타이르는 인동이를 보며 자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를 잘 가려듣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알맞춤한 소리로 물어보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물을 때와 대답할 때에도 어른들을 존중하고 례절바르게 대하여야 합니다.

# 제13과

# 너구리의 아침청소

어느 산골마을에 노루와 너구리가 살고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노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마당과 마을길까지 말끔히 쓸군 하였습니다.

마을길을 지나 일터로 나가는 이웃들모두가 노루를 칭찬했습니다.

《마을길이 이렇게 깨끗한건 노루때문이지.》



《우리모두 노루의 착한 마음씨를 본받자구.》

그럴 때마다 너구리는 (흥, 나두 늦잠이 많아 그렇지 노루만큼 못할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너구리는 이른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리나케 마당비를 잡고 집마당과 마을길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아직 채 밝지 않은 때라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군.)

너구리는 마당비를 깔고앉아 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후 저쪽 산모퉁이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여오는것이 보였습니다.

너구리는 후닥닥 일어나 마을길을 빽빽 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너구리에 대한 칭찬이 온 동네에 쫙 퍼질테지.)

어깨가 으쓱해진 너구리는 마당비를 세차게 휘저으며 마을길을 쓸어나갔습니다.

그바람에 길바닥에선 먼지가 뽀얗게 일고 모래가 사방으로 마구 휘뿌려졌습니다.



한참 길을 쓸어나가던 너구리는 마주오던 토끼가 보이지 않자 허리를 펴고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고 반가와하며 칭찬할줄 알았던 토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솔길로 에돌아가는것이였습니다.

그뒤에 나타난 사슴도 곰도 그리로 가는게 아니겠어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있던 너구리는 그들한테로 뛰여갔습니다.

《아니, 왜 큰길을 두고 이리루 가? 저 큰길루 가려무나. 내가 청소까지 말끔히 해놓았는데.》

그러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리루 가.》

《아니 시간이 없다면서 왜 돌아가니? 빠른 길로 갈것이지.》

그러자 곰이 볼부은 소리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마을길이야 일터로 나가기 전에 일찍 나와 쓸어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먼지를 피우니까 할수없이 돌아가지.》

《뭐, 먼지?》

너구리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토끼가 너구리를 진정으로 타일렀습니다.

《너구리야, 일은 노루처럼 누가 보건말건 진심으로 해야지. 너처럼 남이 보는데서 칭찬이나 바라구 해서야 되겠니?》

너구리의 얼굴은 순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후부터 너구리는 부지런하고 착한 너구리로 되였습니다.

# 제14과

# 방해하면 안돼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레의도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례의도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을 서로 가깝고 화목하게 해줍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웃어른들을 례절있게 대하여야 합니다.

웃어른들이 일터에서 돌아와 쉴 때 크게

말하거나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달리는 기관사입니다.

《야, 아버지가 오셨네. 아버지, 오늘도 짐을 많이 나르셨나요?》

아버지는 《그럼.》 하시며 연희를 꾹 껴안아주시였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겠는데 어서 쉬세요.》 라고 말하며 연희는 아버지가 계시는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때 옆집에 사는 설희가 찾아왔습니다.

설희는 《연희동무, 어제 보던 그림책 <평양소년>을 좀 보자꾸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쉿, 조용해.》

연희는 둘째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댔습니다.

《설희동무, 웃방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쉬고있어. 우리가 크게 말하면 아버지가 쉬시는데 방해가 돼.》

연희는 설희에게 조용히 책을 주었습니다.

웃어른들이 일을 할 때 장난을 하거나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떼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송희는 집안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송희는 토끼우리를 손질하고계시는 아버지에게 못과 망치를 섬겨드리며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송일이는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찾으시면 자기가 박겠다고 하고 톱을 찾으시면 톱질하겠다고 떼를 쓰는것이였습니다.

이때 송희는 동생 송일이를 타일러주었습니다.

《송일아,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떼를 쓰며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면 안돼. 어서 아버지에게 톱을 드려라.》

그제서야 송일이는 머리를 끄떡이며 아버지에게 톱을 드렸습니다.

웃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도중에 끼여들거나 말참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정이네 집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저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하게 토의할 문제가 있어 오셨던것입니다.

은정이 아버지와 로동자아저씨는 새로 만들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부를 하고있던 동생 류정이가《아버지, 이 문제를 좀 대주세요.》하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류정아, 웃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도중에 끼여들면 안돼.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와 이야기를 다 끝마치신 다음에 물어보자. 그게 좋지?》

아버지도 아저씨도 밝게 웃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웃어른들에게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 제15과

## 뼈에 사무친 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놈들이 조선사람을 어떻게 멸시하였고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는가를 잘 기억하고있습니다.》

해방전 일제놈들은 수풍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소나 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공사장에 끌려온 조선로동자들은 넓은 강물우에 높이 매놓은 발판우에서 무거운 짐을 져날랐습니다.

발판은 흔들거려서 사람이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수십길이나 되는 강물에 떨어져 죽을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놈들은 무거운 짐을 진 로동자들이 약간만 주춤거려도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으로 마구 후려갈겼습니다.

이 공사장에는 농촌에서 끌려온 규환이라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세멘트혼합물을 등짐으로 날라다가 발판밑에 있는 통안에 쏟아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저씨가 숨을 헐떡거리며 세멘트혼합물을 통안에 쏟아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아저씨는 그만 세길이나 넘는 깊은 통안에 빠지고말았습니다.

뒤따르던 로동자아저씨들이 《사람이 빠졌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허리띠와 질통끈을 풀어 바줄을 만들자!》

누군가가 이렇게 웨치자 로동자아저씨들은 허리띠와 질통끈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감독놈들은《뭣들이야, 왜 일이나 안하는가?》하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로동자아저씨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이놈들아, 봐라. 사람이 빠졌다!》

로동자아저씨들은 일제감독놈들을 향하여 웨쳤습니다.

《조선사람이 하나쯤 빠졌으면 빠졌지 뭣들인가. 빨리 가서 일들이나 해!》

일제놈들은 사람이 당장 죽게 되였는데도 로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고 욕설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놈들아!》

《조선사람들을 깔보는 네놈들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다.》

로동자아저씨들은 이렇게 웨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일제감독놈들을 족쳐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규환이—》 하고 아저씨를 부르고 또 불렀으나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로동자아저씨들은 사다리를 가져다놓고 세멘트혼합물속에 묻히였던 규환아저씨를 들어올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이런 일이 꼬리를 물고 생겼습니다.

일제놈들은 《발전소뚝에는 사람의 뼈가 들어가야 든든하다.》고 지껄이면서 조선로동자들을 혼합물속에 처넣고 다지는것을 별치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일제놈들은 발전소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악착스럽게 부려먹던 조선로동자들을 쇠줄로 한데 묶은 다음 무거운 돌까지 매달아 강물에 처넣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고 짐승도 낯을 붉힐짓이였습니다.

참으로 일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오늘도 이놈들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고 되살아나 또다시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기회만 엿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일제놈들과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 제16과

## 길을 가리켜줄 때와 길안내를 할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례의도덕을 잘 지키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합니다.》

례의도덕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가 길을 물어도 친절하고 례절있게 길을 가리켜주고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길을 묻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길을 묻는 웃어른들에게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고 《어서 물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응해나서야 합니다.

혹시 앉아있을 때 웃어른들이 길을 물으면 일어서서 묻는 말을 귀담아들어주고 친절히 대답해드려야 합니다.

길을 가리켜줄 때에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는 장소와 함께 가리켜주어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에돌아 조금만 더 가시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소년궁전은 이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길안내를 할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길안내를 할 때에는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2~3발자국 앞서걸으며 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웃사람의 뒤에서 걸으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입니다.

웃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었다면 자기도 함께 들고가겠다고 나서는것이 더 례절있는 행동으로 됩니다.

길을 가리켜주거나 길안내를 한 다음에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길을 잘 살펴가십시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인사말을 잘하면 웃사람들이 더욱 기뻐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길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는 평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길의 시작점은 **김일성**광장입니다.

## 제17과

## 사랑하는 우리 기발

공화국기발, 당기발, 최고사령관기발은 우리가 사랑하는 기발입니다.

9월 9일은 우리 공화국이 태여난 명절입니다.



집집마다 창문가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휘날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세워주신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십니다.

세상에 제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높이 자랑떨치며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휘날립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시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육선수들도 세계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승리를 떨쳤습니다.

우리들도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우리 나라를 굳게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10월 10일은 우리 당이 태여난 명절입니다.



당중앙청사우에 당기발이 높이 휘날립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시고 **김정일**대원수님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우리 당을 생각하며 당기발을 우러릅니다.

우리 당기발을 우러러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할것을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충직한 아들딸이 될것을 맹세합니다.



4월 25일은 우리 인민군대가 태여난 명절입니다.

거리에는 일당백 인민군대오가 행진해나갑니다.

대오의 앞에는 최고사령관기발이 높이 휘날립니다.

일제놈들과 미제놈들을 쳐부시며 언제나 승리해온 우리 인민군대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자랑과 영예를 떨치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앞세우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사령관기발은 우리 인민군대의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영예이며 행복이고 승리의 기치인 우리 공화국기발과 당기발, 최고사령관기발을 언제나 사랑합니다.




### 우리 나라 국장




우리 나라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오각별이 있습니다.

# 제18과

## 누구나 일하는 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우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회제도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있는 영철이네 집식구들은 모두가 자기 힘과 재능에 따라 일하고있답니다.

아버지는 제철소의 용해공으로, 어머니는 피복공장의 재단사로 일합니다.

삼촌은 자동차를 몰고 고모는 리발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영철이네 집에서는 날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여나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영철이네 집에만 차례진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알맞는 일자리를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라의 혜택으로 훌륭히 꾸려진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하루일이 끝나면 즐겁게 휴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남조선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 옥란이네가 살고있었습니다.

옥란이 아버지는 농사짓던 땅을 미국놈들에게 군사기지로 빼앗기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친듯이 몰아대는 미제놈의 자동차에 치워 숨지고말았답니다.

옥란이 어머니는 어린것들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였으나 그 어데서나 받아주지 않아 끝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별치 않은 일자리를 얻자고 해도 수많은 돈을 내야 하며 허리를 굽신거려야 합니다.

지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일자리가 차례지지 않아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

거나 거리와 마을을 헤매다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차에 치워 죽고있습니다.

이것은 다 미제놈들과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놈들때문입니다.

정말 남조선은 일하고싶어도 일할수 없는 사람 못살 세상입니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사회주의 우리 나라와 같이 일자리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람들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여 앞으로 우리 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될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 고마운 제도를 빛내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 제19과

## 공장에 찾아갔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어느날 점심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났어도 철호의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새 기계를 만드시느라 늦어지는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동생과 함께 점심밥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정문앞에 이르자 동생 철옥이가 공장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철호는 동생의 손을 잡아끌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철옥아, 그러면 못써. 경비원할아버지

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돼.》

《그건 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 왔는데두?》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이라도 경비원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들어가야 한단다.》

철호는 동생 철옥이와 함께 경비원할아버지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계실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왔습니다.》

경비원할아버지는 인사성이 밝은 오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철호는 동생과 나란히 아버지가 일하시는 설계실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누이가 설계실문앞에 다가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낯익은 설계원누나가 방실 웃으며 밖에 나섰습니다.

《아니, 철호가 왔구나. 귀염둥이 철옥이도 오구.》

다정히 인사를 한 철호는 누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현장으로 나가셨단다. 나와 같이 가자꾸나.》

철호와 동생 철옥이는 설계원누나의 손을 잡고 좋아라 함께 걸었습니다.

기계소리 요란한 현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하고있었습니다.

동생 철옥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하시는 기대열에 다가가 기계의 제품들을 만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철호는 동생의 손을 잡아 이끌며 《철옥아,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았니. 기계에 손을 대다가 아차 실수하여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또 시간을 아껴가며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방해를 준단다. 어서 가자.》

《오빠, 다시는 안그럴게.》

그들은 다정히 웃으며 아버지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로동자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

누고계셨습니다.

철호는 로동자아저씨들에게 다가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를 만나러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어느새 철옥이는 아버지품에 안기며 《아버지, 어머니가 점심밥을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철옥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시던 아버지는 철호에게서 점심밥을 받아들며 《철호야, 어서 집에 가거라. 일을 끝내고 가겠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알겠어요. 철옥아, 집으로 가자.》

철호는 설계원누나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라고 인사말을 친절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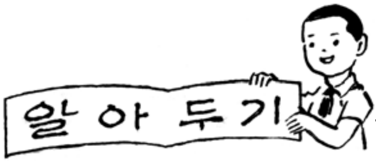
《참, 애두, 너는 어쩌면 그리도 례절이 밝니?!》

철옥이도 설계원언니앞에 한발 다가서며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철호와 철옥이는 아버지의 바래움을 받으

며 공장정문으로 향하였습니다.

철호는 동생과 함께 경비원할아버지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는 공장정문을 벗어나서 집으로 발걸음을 다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는 어떤 때에 쓰는 인사말일가요?

○ 하루동안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여야 합니다.

○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여야 합니다.

# 제20과

## 경각성높은 철남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우에 계급적원쑤가 있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조금도 혁명적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철남이는 언제나 경각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공원에서 놀던 철남이는 떨어진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가져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옆에서 웬 사람이 어물거리고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뒤마을 수매소 집로친이였습니다.

그는 쇠갈구리로 종이쪼박들을 톡톡 찍어서는 마대속에 넣군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주변을 살피면서 딱지와 종이쪽지들을 펴고 그안에 씌여있는 글을 들여다보군 하는것이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철남이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로친은 다가오는 철남이를 보는 순간 흠칫 놀라하는 눈치였습니다.

《여기 이 휴지도 넣으라요?》

철남이는 휴지를 마대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철남이를 바라보며 칭찬하였습니다.

《넌 참 용쿠나. 너두 파지를 많이 모아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려고 하겠지? 그러니 아이들에게 말해서 다 쓴 학습장이랑 사업일지랑 모아 수매소에 가져오게 하려무나.》

《알겠어요. 그런데 파지를 수매받으면 되겠는데 왜 공원휴지통까지 뒤지나요?》

《수매들어올걸 기다리구만 있겠느냐?》

《그래요?》

철남이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로친네가 아무리 보아도 수상하다는 생각을 버릴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줏다 말고 왜 딱지와 종이쪽지를 펼쳐볼가? 그리고 나를 보고는 왜 흠칫 놀랐을가?)

철남이는 조금이라도 수상한것을 보면 제때에 알려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철남이는 가까이에 있는 보안원아저씨를 찾아가 수매소집로친의 수상한 행동에 대하여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알겠다. 지금 간첩놈들은 기관이나 공장의 휴지통을 뒤지면서까지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단다. 더우기 이곳은 중요한 공장지구니까 더 교활하게 날치구 있지. 이런 놈들을 다 잡아내야 우리 공장마을과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나갈수 있다. 너희들까지 도우면 놈들을 모조리 잡아낼수 있단다.》

《알겠어요.》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철남이는 파지를 모아가지고 수매소로 갔습니다.

대문이 닫겨있는 집안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철남이는 살그머니 다가가 대문짬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로친이 휴지를 하나하나 고르는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철남이는 며칠전 공원에서 딱지치기를

하던 아래반 학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딱진 멋지구나. 이 종이는 어디서 났니?》

《이거 우리 아버지 책상안에서 꺼냈지 뭐.》

《막 꺼내서 딱지 만든다구 욕하지 않니?》

《다 쓴건데 뭐.》

대답하는 그 학생의 아버지는 철남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공장설계원이였습니다.

철남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그 딱지가 바로 저 로친의 손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철남이는 대문에서 물러나 몸을 감추었습니다.

수매소집로친은 휴지쪼박들을 품속에 넣더니 대문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던 그는 오솔길을 따라 어딘지 바삐 걸어갔습니다.

철남이는 남준이한테 달려가 보안원아저씨에게 알리게 하고는 몰래 그 로친의 뒤를 따랐습니다.

로친은 산기슭의 외딴집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다시 사방을 둘러보고나서 집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철남이는 담장옆의 나무밑에 숨어서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로친은 웬 낯선 녀인과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설계를 가져왔어?》

《원 급하기두…》

로친은 꾸겨진 종이쪼박 몇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야 휴지가 아니야?》

《 휴지? 그래두 특수기계설계야 어디

가겠소.》

이 두년의 행동을 더 잘 살피려고 나무우에 오르던 철남이는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쿵!》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와닥닥 놀란 두년은 문을 박차고 나와 철남이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요놈이 뒤를 따랐구나. 어디 죽어봐라.》

낯선 계집년이 칼을 빼들고 철남이를 막 찌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순간《땅!》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계집년은《으악!》하고는 폭 꼬꾸라지고말았습니다.

그러자 수매소집늙다리는 와들와들 떨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철남이는 늙다리년을 쏘아보며《원쑤놈의 앞잡이 이 늙은 여우야!》하고 소리쳤습니다.

보안원아저씨는《몇푼의 돈에 팔려 나라와 인민을 배반하는 너절하고 더러운 년, 네년은 마땅히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남이네 반 동무들은 작은 한장의 휴지를 통해서도 나라의 중요한 비밀이 새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느끼였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철남이처럼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튼튼히 지켜가리라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 제21과

## 학생도서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도서관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영진이는 언제나 도서관리용질서를 잘 지킨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영진이는 새로 나온 책을 읽으려고 학생도서관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영진동무, 어디로 가니?》

《혁이동무로구나.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 나도 갈가?》

《혁이동무, 도서관으로 갈 땐 누구나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돼. 그런데 넌…》

《그럼 먼저 가. 내 곧 따라갈게.》

혁이가 집으로 달려가자 영진이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영진이는 도서관앞에 이르러 모자와 옷, 신발에 묻은 먼지를 말끔히 털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진학생이 왔구만요. 어떤 책을 보겠어요?》

도서관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동화이야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선생님은 영진이에게 곧 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때 도서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영진동무, 책을 빌렸니?》

혁이는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큰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있던 학생들의 눈길이 모두 혁이에게로 쏠리였습니다.

영진이는 재빨리 손을 입가에 가져다대며 눈짓으로 혁이를 불렀습니다.

《혁이동무, 동무들이 책을 읽고있는데 너처럼 문을 벌컥 열거나 큰소리로 말하면 안돼. 도서관에 와서는 조용해야 돼.》

영진이는 소곤소곤 혁이를 타일렀습니다.

혁이는 알겠다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빌린 책을 가지고 열람실에 들어갔습니다.

열람실에는 벌써 많은 동무들이 와서 열심히 책을 읽고있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무엇인가 자꾸 쓰기도 하고 책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공부하고있지만 열람실은 참으로 조용하였습니다.

영진이는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어가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혁이도 영진이처럼 소리나지 않게 의자를 당겨놓고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열심히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를 본 다음《우쭐대던 너구리》를 한참 재미나게 보고있을 때였습니다. 혁이는 한가지 재간만을 믿고 우쭐대던 너구리가 물에 빠져 진땀을 빼는 장면이 나오자 책장에 그려진 너구리의 꼬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러주었습니다.

영진이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다음장을 번지였을 때였습니다.

《영진동무, 이 장면을 한장 뜯어가지고 가서 그려볼가?》

《그러면 안돼.》

그러자 혁이는 히죽 웃었습니다.

태연스럽게 히죽거리는 혁이를 바라보는 영진이의 마음은 안타까왔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동무들이 보는 책을 혁이처럼 너구리가 밉다고 손가락으로 책에 장난을 하거나 책장을 뜯어낸다면 나중에는 못쓰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영진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혁이에게 꼭 타일러주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진이와 혁이는 점심시간이 되자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가지고 선생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책을 바치겠습니다.》

선생님은 책도 깨끗이 보고 감상문도 잘 썼다고 칭찬해주시였습니다.

《빌려다 볼 책은 없어요?》

《소설 <배움의 천리길>을 주십시오.》

영진이가 이렇게 대답하자 혁이는 소설《우리 분단위원장》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책을 받아든 그들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약속이나 한듯이 인사를 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 제22과

## 너구리의 속심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뜨겁게 내려쪼이던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어지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슴이 짐승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해지기 전에 우리 딸기밭김을 말끔히 매자.》

사슴의 이 말에 동산의 짐승들은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너구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가 하고 생각하며 딸기밭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긴 밭고랑들사이에 절반쯤 나가다가 없어진 짧은 이랑이 있었습니다.

(히야! 이게 뭐야, 요걸 내가 매야지.)

이때 부지런한 노루가 김이 제일 많은 이랑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이랑씩 매면 끝나겠으니 일을 부쩍 다그치자.》

《그래, 어서들 냉큼 해제끼자구.》

너구리는 큰소리로 받아외우며 누가 잡을세라 김이 제일 적고 짧은 이랑을 남먼저 맡았습니다. 그뒤로 깡충이와 사슴, 오소리들이 긴 이랑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딸기밭 중간에서 일을 끝마친 너구리는 살짝 빠져 밭머리에 있는 나무그늘밑에 앉아 긴 이랑을 맡아서 부지런히 김을 매는 깡충이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깡충이는 살줄 몰라. 어떤 때는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것 같은데 이런 때 보면 영 맹꽁이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일한다구 누가 칭찬을 더 하나, 먹을것을 더 주나. 참 코막구 답답하지.)

너구리는 다른 동무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

지 않고 흥얼흥얼 코노래만 불렀습니다.

《김매기가 싫어서 저렇게 건달을 부리면 어쩌누, 그래서야 누가 곱다고 할가?》

오소리가 너구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들이 딸기밭김을 다 맸을 때였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모두들 수고했는데 자기가 맨 마지막이랑에서 잘 익은 딸기를 한바구니씩 따가도록 하자꾸나.》

사슴이 짐승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너구리는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이랑에서?! …이럴줄 알았으면 나두 긴 이랑을 맡을걸…)

자기가 맨 짧은 이랑에서는 잘 익은 딸기를 바구니에 절반도 채울수 없었습니다.

짐승들앞에 나타난 너구리는 펄쩍 뛰며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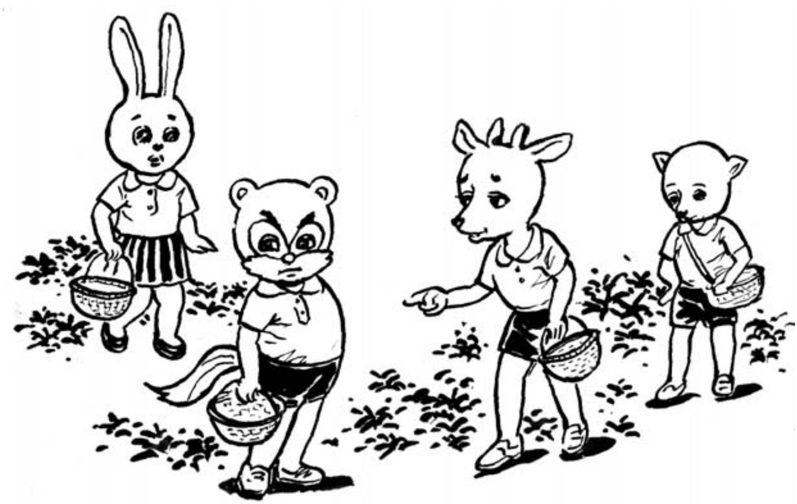
《거 뭐, 네 이랑 내 이랑 따지겠니? 아무 이랑에서나 잘 익은것으로 한바구니씩 따가자꾸나.》

그리고는 렴치없이 깡충이가 김맨 이랑에서 딸기를 따려고 하였습니다.

《흥, 딸기를 따서 먹으라니까 큰 바구니를 들고 긴 이랑을 찾는구나. 짧은 이랑만 찾을 땐 언제구,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지.》

깡충이가 혼자서 종알거렸습니다.

이때 노루가 척 나서며 너구리를 타일렀습니다.



《이봐, 너구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먹을 때 욕심부리는것만큼 일할 때도 욕심 좀 부리라구!》

너구리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져 아무말도 못하고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너구리는 일을 착실히 잘했답니다.

# 제23과

## 목욕탕에 간 형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학교와 사회의 모든 생활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목욕을 자주 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목욕을 자주 하지 않으면 몸에 때가 껴서 여러가지 병에 걸릴수 있고 몸이 거뜬하지 못하고 머리가 흐리터분하여 공부도 잘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몸을 깨끗이 거두는 철민이는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목욕을 하군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는 질서를 잘 지킵니다.

어느 일요일, 철민이는 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표를 뗀 그들은 관리원할아버지가 정해준 옷보관칸에 옷을 벗어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성급하게 옷을 벗어 털어서는 옷보관칸에 아무렇게나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어른들앞을 가로질러 목욕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철민이는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서 그 애의 등을 가볍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그 애도 제 잘못을 뉘우쳤는지 얼굴을 붉히며 주춤거렸습니다.

《형, 왜 그래?》

《저 애처럼 행동하는건 웃어른들앞에서 례절바르지 못한 행동이거든.》

동생은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잠시후 철민이는 동생을 앞세우고 조용히 목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조금씩 몸에 끼얹으면서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에 비누칠을 하여 온몸을 문지르고 맑은물로 비누물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철민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철민이곁에서 몸을 씻고있던 동생은 목욕

탕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통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철민이는 얼른 동생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철진아! 여긴 물놀이장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을 어지럽히면 안돼. 바가지로 퍼내여 써야 해. 그리고 떠들어도 안돼.》

철진이는 형님의 말을 듣고 제자리에 앉아 몸을 씻었습니다.

몸을 다 씻은 철진이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여러번 온몸에 마구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곁사람들에게 튕겨졌습니다.

곁사람은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있었는데 물이 튕기자 좋지 않은 눈으로 철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철민이는 가만 있을수 없어 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안됐어요. 제가 미처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철진아, 저쪽에 가서 물을 끼얹어라.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게 하면 안된다.》

목욕을 끝낸 그들은 쓰던 물바가지를 비누

로 닦아서 정해진 자리에 가져다놓았습니다.

《참 기특한 애들이구나.》

철민이네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손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 내의를 갈아입고 교복을 단정히 입은 다음 관리원할아버지에게 인사까지 하고 거리에 나선 철민이와 동생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고 기분은 더우 좋았습니다.




○ 목욕은 한주일에 한번씩 하는것이 좋습니다.

○ 운동을 많이 하였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마다 목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제24과

## 지주놈의 검은 심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지주, 자본가들은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공부를 끝낸 어느날 기남이는 학습반 동무들과 함께 마을에서 제일 나이많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옛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마을앞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오, 너희들이냐?》

《할아버지, 재미나는 옛이야기를 듣고싶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응, 그래? 그럼 모두 앉거라.》하시더니 벼이삭이 설레이는 들판을 바라보시는것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와 기남이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해주시고 뭘 그

리 생각하시나요?》

한참만에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저 벼이삭 설레이는 들판을 보니 지주놈에게 땅을 빼앗기구 고생하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그런다.》

《여기에두 지주놈이 있었나요?》

《있었지. 바로 저기 건너마을에 황지주란 놈이 살았단다.》

할아버지는 그쪽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이곳 농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오막살이집에서 살았지만 황지주놈은 비단옷에 기름진 배를 내밀구 기와집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그놈은 일제놈들과 한짝이 되여 농민들이 일군 땅을 모조리 빼앗아 제것으로 만들었거든. 우리 집두 황지주놈한테 땅을 떼우고 죽지 못해 살아왔단다.》

기남이와 그의 동무들은 지주놈의 종살이때문에 굽어든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떼우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한 학생이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

기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땅을 떼운 농민들은 하는수 없어 그놈에게서 땅을 얻어 부치였지. 농민들은 일년내내 쉬지도 못하구 일했지만 그놈은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가을이 되면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낟알을 모조리 긁어갔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주놈은 놀고먹는 돼지와 같은 놈이지요?》

《그럼. 그놈은 남의 피땀을 짜내여 제배만 채우는 놈이야.》

기남이네 반 동무들은 지주가 악독하기 그지없는 나쁜놈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 지주놈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땅을 빼앗긴 황지주놈은 어떻게 됐나요?》

기남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풍년든 논벌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생각해봐라, 땅을 빼앗긴 그놈이 가만히 있을상 싶으냐? 그놈은 앙심을 품고 땅을 되찾으려고 날뛰였지.

저 앞벌에 어린 손자놈까지 앞세우고 다니면서 제 땅이 어느것인가를 대주며 어느때든지 땅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단다.》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기남이네 반 동무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그후 지주놈은 더러운 땅문서를 껴안구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도망가서두 그놈은 이를 갈면서 빼앗긴 땅을 찾을 때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그러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국놈들을 따라 다시 기여들었지.》

《그래요?…》

《또 못된짓을 했나요?》

저저마다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 그럼. 황지주놈은 쌀가마니들을 듬뿍듬뿍 쌓아놓고 잘살고있는 농민들을 보자 그만 분통이 터져올랐지. 이발을 사려문 그놈은 마을농민들앞에서 땅문서를 휘두르면서 해방후 5년동안 <제 땅>에서 거둔 곡식을 몽땅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단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작이였지.

우리 수령님께서 나누어주신 땅에서 거둔 곡식을 내놓으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지.

농민들은 그놈의 수작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 악에 받친 황지주놈은 미국놈들과 한짝이 되여 농민들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두구 죽였다.

그래 농민들은 가만히 있을수 없었지.



<이 악독한 황지주놈아, 어제는 일제놈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 농민들을 못살게 굴더니 오늘은 또 미제놈의 앞잡이가 되여 숱한 농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여?…>, <네놈이 그렇게 악한짓을 하구 오래 갈것 같으냐?>

이렇게 황지주놈과 맞서싸웠지.

그후 미제놈들이 쫓겨가게 되자 지주놈은 또 도망치려했지. 그런걸 우리 마을농민들이 붙잡아 족쳐버렸단다.

그때 땅굴속에 숨어있던 황지주 아들놈은 땅문서를 가지고 몰래 남조선으로 도망을 쳤다.

그놈은 아마 땅문서를 가지고 지금도 잃은 땅을 되찾으려구 때가 오길 기다리고있을게다.



지주놈들의 검은 속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놈들은 대를 물려가며 앙심을 품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주놈들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남이와 그의 동무들은 지주놈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놈들을 쓸어버릴 마음을 굳게 다지였습니다.

## 제25과

## 부탁하기와 들어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중도덕과 례의범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선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인사성이 밝고 품행이 단정하여 사람들로부터 착한 학생으로 사랑받고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선희는 고장난 손풍금을 메고 명순이 오빠에게로 갔습니다.

명순이네 집으로 가니 명순이 오빠가 자기 방에서 손풍금을 타고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 명순이와 선희가 방에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신나게 손풍금을 타는것이였습니다.

명순이가 오빠의 등뒤로 살그머니 다가가 속삭이였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는 돌아앉으며 《꼬마손풍금수가 왔구나.》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웃음지으며 인사를 한 선희는 《명수오빠, 손풍금련습을 중단시켜 안됐어요. 이 손풍금이 고장나서 …좀 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보자꾸나.》

이렇게 말하며 오빠는 선희에게서 손풍금을 받았습니다.

《손풍금왼쪽단추 5번과 8번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손풍금의 왼쪽단추를 여러번 눌러보던 명순이

오빠는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선희부탁이야 들어주어야지. 래일 저녁에 찾으러 오너라.》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명순이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는 선희는 기뻤습니다.

《명수오빠, 저의 부탁을 들어주니 정말 고마와요!》

이렇게 말을 한 선희는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선희를 친절하게 바래우던 명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선희동무는 정말 례절이 바른 동무야!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도 독차지하는가 봐…)

어느새 선희는 집뜨락을 나섰습니다.

선희가 체신소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선희동무!》

《아이 깜짝이야, 복순동무구나. 너를 찾아가려던 참이야. 마침 잘 만났다.》

《왜?》

복순이는 까만 눈을 굴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복순동무가 나한테 빌려주겠다던 소설

<그는 아홉살이였다>를 가지러…》

《그랬댔구나.…》

방금전까지 밝게 웃던 복순이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선희동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재미있어 또 보다나니 아직 채 읽지 못했어. 오늘 저녁중으로 꼭 너한테 가져다주겠다. 좀 더 기다려.…》

복순이는 동무의 부탁을 제때에 들어주지 못한 잘못을 진심으로 느끼며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무슨 책이든 손에 잡으면 파고들면서 보는 복순동무인데 그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선희는《그럼 마저 읽어야지. 래일 아침 학교에 올 때 가지고 오려무나.》라고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

복순이는 선희의 웃는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겐 동무의 부탁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부족했지! 꼭 고치고 부탁을 잘 들어주겠어.)

선희와 복순이는 밝게 웃으며 갈림길에서 헤여졌습니다.




부탁은 믿는 마음이 있을 때 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에도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제26과

# 교통보안원의 지휘신호에 따라 길을 건느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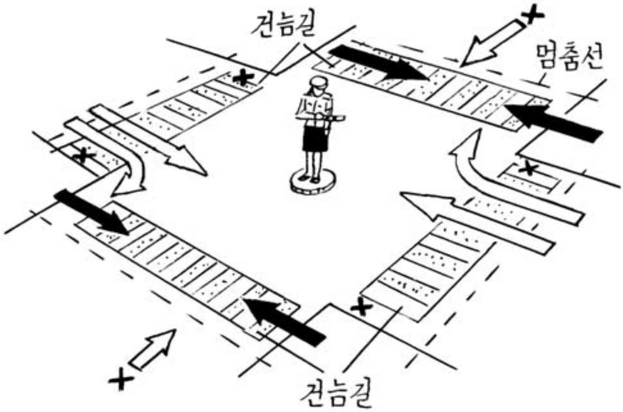
《학생들은 교통질서를 지키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교통보안원의 지휘신호는 사람들과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길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교통보안원의 지휘신호에 따라 정확히 행동하여야 교통질서를 지킬수 있고 교통사고도 미리 막을수 있습니다.

교통보안원의 지휘신호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 ① 곧바로 또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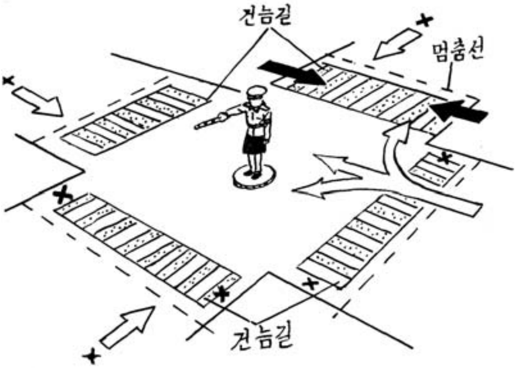

이 신호는 교통보안원이 오른팔을 가슴앞에 가로 들거나 두팔을 내리우고 차렷자세로 서있는 동작을 할 때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교통보안원의 앞과 뒤에 있는 건늠길로만 건너가야 합니다. 교통보안원의 왼쪽과 오른쪽 건늠길에는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차들은 교통보안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서로 곧바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② 곧바로 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게 하는 신호

이 신호는 교통보안원이 오른팔을 어깨높이로 펴서 앞으로 내드는 동작을 할 때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교통보안원의 뒤건늠길로만 건너가야 합니다.

교통보안원의 앞과 오른쪽, 왼쪽건늠길로는 사람들이 건너가지 말아야 합니다.

왼쪽길로 온 차들은 곧바로 가거나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③ 일반예고신호

이 신호는 교통보안원이 오른손을 모자의 높이로 드는 동작을 할 때입니다.

걸음길에서 일반예고신호를 받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교통보안원의 다음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늠길에 들어섰을 때 일반예고신호를 받은 학생들은 차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빨리 건너가야 합니다. 교통보안원이 일반예고신호를 할 때에는 차나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지 말고 다음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④ 특별예고신호



이 신호는 교통보안원이 오른팔을 머리우로 높이 곧추 드는동작을 할 때입니다.

특별예고신호를 할 때에는 모든 차들이 멈춤선밖의 길 오른쪽옆으로 비켜서야 하며 사람들은 절대로 차길에 들어서지 말고 다음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건늠길에 들어선 학생들은 일반예고신호때처럼 빨리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네거리와 갈림길, 사귐길에서 교

통보안원의 지휘신호를 알아보고 길을 건늘 때에도 반드시 건늠길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지휘신호와 함께 길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들을 살피면서 건너가야 합니다.

# 제27과

# 부모가 손님을 데리고왔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특히 손님을 례절바르게 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손님을 례절바르게 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성의를 다하여 돌봐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손님을 데리고오면 반갑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여야 하며 정확히 대답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부모들과 함께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맏아들 성진입니다.》

손님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충성소학교에 다닙니다.》라고 정확히 대답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방안에 들어서면 손님의 편의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손님의 모자나 가방을 받아 적당한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손님을 더운쪽에, 무

더울 때에는 선선한 자리에 앉게 하여야 합니다.



손님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참견을 하거나 왔다갔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에게 물을 말이 있으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묻도록 해야 합니다.

손님의 앞을 지날 때에는 몸가짐을 낮추고 발자국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에도 례절있게 바래워야 합니다.



손님의 모자를 걸개에서 벗겨드리고 가방을 들어주며 신발도신기 편리하게 바로 놓아드려야 합니다.

손님을 문이나 현관, 문밖에까지 나

가 바래워야 합니다.

손님을 바래울 때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밤길에 조심히 가십시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손님을 반갑게 맞고 성의껏 돌봐주며 잘 바래드리는 좋은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 제28과

# 영예군인아저씨 기뻐하시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광혁이네 분단동무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영예군인아저씨를 돕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광혁이네 마을에는 최전연초소에서 적들

과 맞서 용감히 싸우다가 그만 두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아저씨가 살고있었습니다.

영예군인아저씨가 새가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예군인아저씨에게결혼식상을 보내주시고 가정살림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아담한 살림집까지 마련해주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너나 할것없이 모두가 영예군인가정을 사랑하며 도와나섰답니다.

분단위원장인 광혁이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광혁이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영예군인아저씨의 집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눈썰미가 빠른 정민이와 함께 영예군인아저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아저씨의 집은 참말 좋았습니다.

언제나 해빛이 밝게 비쳐드는 방안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록음기, 옷장, 이불장, 침대와 책상 등 모든것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습니다.

영예군인아저씨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불편하실가?…

누우신걸 보니 아프신 모양이구나…)

광혁이와 정민이의 부축임을 받아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였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우린 아저씨가 보고싶어 왔어요.》

《아저씨, 아프진 않나요?》

그들은 한마디씩 물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해서 책을 보고있지 않니?》

《그런데 아지미는 어데 갔나요?》

그러자 아저씨는 《응, …그러니 너희들 정찰을 왔구나.》하시면서 허허 웃는것이였습니다.

얼마후 아저씨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아지미는 말이다, 영예군인의 안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장군님의 사랑만 받구 있겠는가고 하면서 내 몫까지 두몫, 세몫을 하겠다고 일용품공장에 나가 늘 살다싶이 한단다.》

광혁이와 정민이는 그만 가슴이 뜨거워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지닌 영예군인가정이구나. 그런데 혼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적적해하실가, 영예군인아저씨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자!)

다음날 광혁이의 말을 들은 동무들은 너도나도 영예군인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릴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정민이는 아저씨가 기뻐하게 새로 나온 그림책과 혁명소설을 보여드리고 시도 읊어주며 노래도 불러주자고 하였습니다.

철수는 아저씨한테 새로 나온 영화도 보여주자고 하였습니다.

또 영란이는 방안과 뜨락도 거두고 꽃밭도

가꾸어주자고 제기했습니다.

사탕, 과자, 사이다, 단물이랑 가지고 가겠다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공부가 끝난 후에 영예군인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하던 영예군인아저씨네 집에서는 랑랑한 글소리, 밝은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혁이와 그의 동무들은 영예군인아저씨와 한집안식구처럼 공부도 하고 재미나는 그림책을 보며 함께 웃기도 하였습니다.

영예군인아저씨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있었던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웃음꽃을 피워갔습니다.

귀엽고 명랑한 소년단원들과 함께 지내게 된 영예군인아저씨는 불편한줄도 모르게 되였고 얼굴에는 웃음만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예군인의 안해는 자기를 대신하여 남편을 날마다 기쁘

게 해주는 소년단원들이 너무도 고마와 정말 훌륭한 소년단원들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소년단원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예군인아저씨들모두가 더 명랑하고 활기에 넘쳐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습니다.

우리들도 광혁이네 분단동무들처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영예군인아저씨들을 돕는 일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 제29과

## 학습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인것만큼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봄향이는 학습반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란동무와 함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봄향이는 정란이네 집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정란이는 마을동무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정란동무, 학습반에 갈 시간이 늦어지겠다. 어서 가자.》

《학습반? 좀 늦어지면 뭐라니, 좀 더 놀자꾸나.》라고 말하며 계속 줄넘기를 하였습니다.

《정란동무, 학습반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해.》

그래도 정란이는 놀기만 했습니다.

봄향이는 학습반에 늦어가면 먼저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무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타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야 정란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놀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정란이는 봄향이와 함께 영미네 집에 학습반하러 갔습니다.

《똑 똑 똑》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미가 동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방안에 들어서니 영미는 학습반동무들이 앉아 숙제공부를 할수 있게 자리를 정돈해놓고 동무들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제일 먼저 왔구나.》 정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향이는 학습반동무들이 다 오길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란이는 의자에 기대여앉아 두다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안의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장난을 하였습니다.

《정란동무, 사람들은 몸가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대. 너처럼 학습반에 와서 여기저기 집안물건에 손을 대고 장난하는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정란이는 봄향이의 말을 들으니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학습반동무들이 다 모이자 그들은 수학공부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배워준 내용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수학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공부하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영미가 머리를 싸쥐고 생각한다고 하여 터진 웃음이였습니다.

《애들아, 모두들 조용히 앉아 공부하는데 그런걸 가지고 웃으면 어떻게 하니. 너희들의 그 잘못된 행동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던 학습분위기가 깨지지 않았니?》

봄향이는 동무들을 깨우쳐주었습니다.

방안은 다시금 조용해지고 연필달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모를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알기 쉽게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영미도 뒤떨어진 동무의 학습을 성의껏 방조해주었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며 질서를 지켜가니 공부를 더 잘하게 되였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봄향이는 학습반총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학습반에서는 동무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공부를 잘하였어. 그런데 일부 동무들이 학습반모임시간보다 늦게 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 오늘 학습반을 끝마치겠어.》

봄향이의 말이 끝나자 동무들은 다정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가.》

《잘 있어.》

우리들도 봄향이네 학습반동무들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학습반에서의 행동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 제30과

## 《기특한 어린이들이요》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끝낸 명희는 동생 경희와 옆집에서 사는 성옥이를 데리고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고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순간 그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꽉 차올랐습니다.

(우리들에게 배움의 꽃대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노래를 부르고있던 명희의 눈앞에는 마을에 있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의 글발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그렇지, 래일이 바로 44년전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아버지장군님께서 그곳을 찾으셨던 뜻깊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명희는 경희와 성옥이에게 앞산에 꽃놀이를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정말 앞산에는 향기를 풍기는 울긋불긋한 들꽃들이 많이 피여있었습니다.

꽃들을 보자 경희와 성옥이는 좋아라 손벽치며 제일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뛰여다니였습니다.

이때 명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래일이 무슨 날인지 맞춰봐.》

뜻밖의 물음에 경희와 성옥이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차 한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은줄 알아! 래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아버지장군님

께서 우리 고향을 찾아주셨던 날이라는걸.》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들 셋은 고르고 또 고른 꽃송이들을 정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밤 그들은 꽃들을 꽃병에 정히 꽂아놓고 한송이라도 시들세라 물을 갈아주군 하였습니다.

아침일찍 명희는 경희와 성옥이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꽃다발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표식비앞에 꽃다발을 놓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을 헤치시고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그들의 마음엔 이 뜻깊은 곳을 아버지장군님께서 금방이라도 찾아오실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현지지도표식비주변을 알뜰히 거두고 잔디밭속에 있는 잡풀도 말끔히 뽑았습니다.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얼마후 이곳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44년전의 그날을 돌이켜보시다가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놓인 소박한 꽃다발을 보시였습니다.

이윽토록 기쁘신 안색으로 바라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한 일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일군들로부터 11살, 9살, 8살 나는 김명희,김경희, 김성옥학생들이 한 일이라는것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기특한 어린이들이요.》라고 높이 치하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학생들은 이들처럼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만을 그리며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 제31과

## 연구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연구실을 잘 리용하자면 조직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은주네 반 동무들은 연구실에서 학습할 때 언제나 질서를 잘 지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학습시간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옷에 묻은 먼지와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머리도 곱게 빗고 소년단 붉은넥타이도 단정히 맨 다음 차례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사뿐사뿐 걸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의자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는 연구실에서는 조용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나 인사하고 다시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시작하시자 모두가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장난을 하거나 옆동무와 소곤소곤 귀속말을 하는 동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서 중요한것들은 학습장에 한자한자 정성스레 써넣었습니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동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의자를 살며시 들어 책상밑에 넣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가면서 도록판의 사진들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모두가 차례로 도록판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보고 나가겠다고 서두르거나 동무를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은주와 그의 반 동무들은 단정한 자세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록판 가까이에 서있던 순희가 도록판을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 동무가? 도록판에 손을 대다니?…)

은주는 순희의 손을 살짝 건드려주었습니다. 흠칫 놀란 순희는 손을 거두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순희에게 다가온 선생님이 이야기하시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실에 들어오면 언제나 마음도 행동도 정중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연구실을 언제나 정중히 리용하며 모든 비품들을 귀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희는 동무들과 함께 《예.》 하고 힘차게 대답하였습니다.

순희는 연구실을 나서면서 다음시간에는 연구실리용질서를 잘 지키리라 마음다지였습니다.

# 제32과

## 부모의 충고를 들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부모님들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딸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하여 때로는 아픈 매질도 하고 엄하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시다가도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시고 사랑해주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는 응당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동무들은 부모가 엄하게 타이른다고 하여 버릇없이 대하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동무들은 부모님들이 충고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공손히 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어 부모님들이

타이르면 하던것을 그만두고 자세를 바로하고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앞에서 뒤짐을 지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자소리로 두덜거리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딴곳을 보거나 장난을 하며 타이름을 달게 여기지 않고 문을 차고 훌렁 나가버리거나 대답질하는것은 매우 버릇없는 나쁜 행동입니다.

동무들은 부모님들의 충고를 잔소리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조용조용 이야기하시면 잘 듣지 않다가도 큰소리로 말해서야 마지못해 들어서도 안됩니다.

부모님들의 충고를 작은것과 큰것으로 가리면서 행동하는것은 도덕이 없고 례절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동무들은 부모님들의 충고를 들을 때 코웃음을 치거나 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동생이나 형에게 잘못

을 넘겨씌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무들은 부모님들이 사정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신다고 대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사연을 모르고 엄하게 말을 하실 때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다고 부모님들에게 대들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연을 모르고 말을 하실 때는 말씀이 끝난 다음 조용히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연을 모르고 엄한 말을 하신다고 하여 화풀이로 어린 동생을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때리든가 손에 들었던 물건을 여기저기 마구 내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더욱 나쁜 행동입니다.

동무들은 부모님들의 충고를 허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아버지,

고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마음으로 충고를 주시던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며 아들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충고를 아들딸들을 믿고 주시는 사랑으로 알고 허심하게 귀담아듣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부모앞에서 지켜야 할 주의점**

○ 대답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반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33과

## 도움을 받으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 하고 동지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동무들사이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동무들사이가 더 다정해지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생활할수 있습니다.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수어머니는 동무들과 탁구를 치고있는 남수를 보았습니다.

남수는 학교의 탁구소조원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재치있는 동작으로 상대편을 꼼짝못하게 하는 남수의 탁구솜씨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탁구를 끝내고 이마의 땀을 닦던 남수가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그래 공부를 다하구 노니?》

《예. 다했어요.》

어머니는 남수가 대견스러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그런데 남수의 손에 류다른 탁구채가 쥐여져있는것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수야, 그 탁구채는 어디서 났니?》

《경일동무가 주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출장갔다가 사온것이래요.》

《그런데 경일이것을 네가 가지면 되니?》

《아니예요. 경일동무가 나를 위해서 주는거라고 했어요.》

《그래.》

남수의 어머니는 동무를 위해주는 경일이의 마음이 고마왔습니다.

《남수야, 경일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니?》라고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남수는 탁구알을 통통 튕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까지야 뭐, 나야 탁구를 잘 치니까 응당 받을수 있어요.》

어머니는 남수에게 동무에게서 도움을 받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날저녁 어머니는 남수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남수야, 동무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고맙게 여기고 진심으로 도울 생각을 해야 한단다. 그러니 넌 경일이가 탁구채를 준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 안된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야 남수는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도와준 동무의 마음을 고맙게 여겨야 동무들사이에 정이 더 두터워지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동무에게서 도움을 받는데만 그치지 말고 도와준 동무를 꼭 잊

지 말고 도와주는 진실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난 남의 도움을 받고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내가 나빴지! 경일동무가 뭐라고 할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어머니는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남수야, 너의 학급에도 도와주는 동무들이 많지?》

《네, 많아요.》

어머니는 남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동무들의 사랑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 그 마음이 점점 자라 나중에는 동무를 깔보는 나쁜 사람이 될수 있단다.》

《알겠어요, 어머니.》

남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도움을 받으면 고맙게 여기고 꼭 도울줄 아는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 제34과

## 우리 마음도 따라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나가는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몇해째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던 때였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놈들은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기회만 노리고있었습니다.

큰물과 가물로 하여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습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날마다 전해지고있었습니다.

학습반에 모여 공부를 하고있던 경철이네반 동무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곳들을 조선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야, 여기, 자강도 만포시말이야.》

《옳아, 여기가 만포시로구나.》

그들은 만포시를 짚어보며 그곳이 평양으로부터 얼마나 먼곳일가, 만포시까지 가자면 높은 산, 험한 령은 얼마나 넘어야 하고 작은 강, 큰 강은 모두 몇개나 될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천강, 명문고개, 장자산…

이렇게 지도를 짚어보던 경철이가 동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명문고개를 넘어 자강땅에 가시였는데 이번에도 명문고개를 넘으시였구나.》

《참말 그렇구나.》

성국이의 대답이였습니다.

이때 봉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명문고개가 어찌나 높고 험한지 기관사들도 이 고개를 다 오른 다음에야 <후 —> 하고 마음을 놓는대.》

《그러니 아버지장군님께서 얼마나 피로하실가. 명문고개를 지나서도 만포시까지는 또 얼마나 멀다구.》

진숙이의 말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만포시를 찾으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경철이가 아버지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더듬어보며 말하였습니다.

《어제는 적들과 마주하고있는 군사분계선까지 나가시여 인민군대아저씨들과 함께 계시였는데 밤새 그 머나먼 길을 가시였구나. 그러니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쪽잠과 줴기밥으로 또 새날을 맞이하시였구나.》

동무들도 모두 뜨거운것을 삼키며 《정말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철이는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지도를 잘 그려 아버지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곳에 붉은별을 따붙이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것으로 될거야. 어때?》

《그게 좋겠어.》

동무들은 경철이가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경철이네 반 동무들은 조선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그리며 그들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이 한두해사이에 만도 명문고개, 철령과 같은 령길을 수없이 넘으시였고 오성산, 월비산 등 적들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조국의 높고 험한 고지들을 끊임없이 오르내리시였기때문입니다.

일요일과 명절에도 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새겨볼수록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경철이와 그의 동무들은 학습반에 모이면 아버지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곳을 지도에서 찾고 거기에 붉은별을 따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에 마음도 따라세우며 자기들이 공부한 정형을 총화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국이가 수학문제풀이에서 다른 동무들보다 한점 차이로 뒤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철이네 학습반동무들은 저마다 성국이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지금 철령고개를 또 다시 넘으시여 적들이 눈앞에 보이는 최전연고지에 가계신다. 지도에서 철령고개를 살펴보아라. 얼마나 높고 험한 곳인가를!》

《철령고개는 굽이굽이 아흔아홉굽이란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꽃피워주시려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멀고 험한 령길을 넘고 또 넘으시는것이란다.》

《한몸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적들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고지우에까지 오르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드

리겠니? 공부를 잘하는것으로 기쁨을 드려야 한다.》

동무들의 목소리는 성국이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성국이는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경철이네 학습반동무들은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경철이네 학습반동무들처럼 공부를 잘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만을 드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 (소학교 제3학년용)

3판

집 필 김은희, 길만수　　　편 집 황옥별

심 사 심의위원회　　　콤퓨터편성 황옥별

장 정 류명심　　　그 림 리창엽

교 정

---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 발행 주체99(2010)년 8월 17일

3판 인쇄 주체101(2012)년 월 일　　3판 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

교-10-454-중　　　값 원